

'92년 석유제품 소비분석 및 '93년 전망

金柱憲

<석유협회 홍보실 대리>

1. '92년 석유소비 분석

(1) 개요

'92년 총석유소비는 514,223천배럴로써 전년대비 21.09%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연속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소비(천배럴)	200,591	210,511	250,558	287,146	356,349	424,666	514,223
증가율(%)	6.03	4.95	19.02	14.60	24.10	19.17	21.09

'92년도는 국내산업의 생산활동 저하,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석유소비 증가율은 높았으며, 특히 '92년을 에너지절약의 원년으로 삼고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만큼은 큰폭으로 증가하여 석유의존도(62.2%)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석유제품가격인상으로 '92년 하반기의 석유소비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다음표는 주요 유종별 상·하반기 소비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단위 : %)

	후발유	등유	경유	B-C유	나프타	LPG	계
1992. 1~6月	27.5	48.7	16.8	13.7	72.5	27.3	26.5
1992. 7~12月	18.8	20.0	6.0	14.8	30.4	22.8	16.1
1992년	22.8	33.8	11.3	14.2	47.9	25.0	21.1

부문별 소비 실적은 산업부문이 절대량이 가장 많음에도 소비증가율은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시설 증대로 인해 전년대비 28.0% 증가하였고, 수송부문은 전체 상승율에는 못미치는 14.8%를 나타냈으나 아직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기타 부문은 전년대비 28.7% 감소하였다.

(단위 : 천배럴)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발전	도시가스
1991	170,653	115,144	77,347	15,472	41,424	4,626
1992	218,372	132,198	94,237	11,039	51,828	6,550
증감율(%)	28.0	14.8	21.8	△28.7	25.1	41.6

(2) 부문별 석유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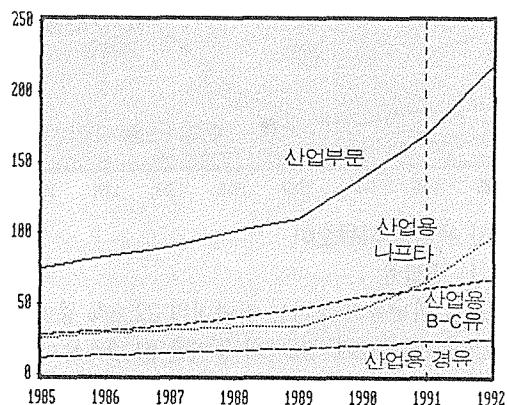
1) 산업부문

총석유소비의 42.5%를 점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8.0% 증가하여 '91년의 22.5%보다 5.5%P 상승하였다.

산업용의 주유종은 나프타, B-C유, 경유로써 특히 나프타 소비는 '9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나프타 분해공장 및 BTX 제조공장의 신증설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47.9%의 증가율은 나타냈다.

그러나 산업용 B-C유는 10.6%, 경유는 4.1% 증가율에 그쳤다.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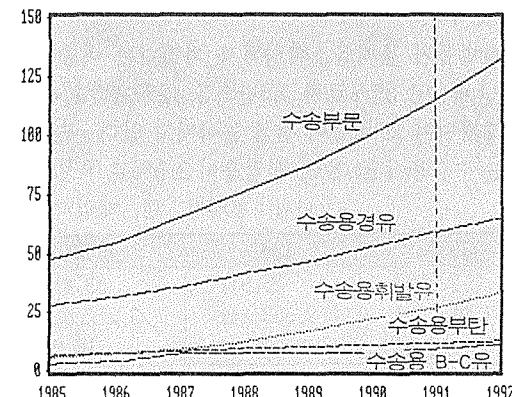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석유소비는 해상에서의 연안수송 선복량 증가와 항공운송증대,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다.

수송용 연료유는 휘발유, 경유, 부탄 및 선박용

(백만㎘)



B-C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육상운송용인 휘발유(24.2%), 해상운송용인 B-C유(21.8%), 항공운송용인 Jet A-1(24.7%)의 소비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수송용 경유의 소비는 9.3%의 증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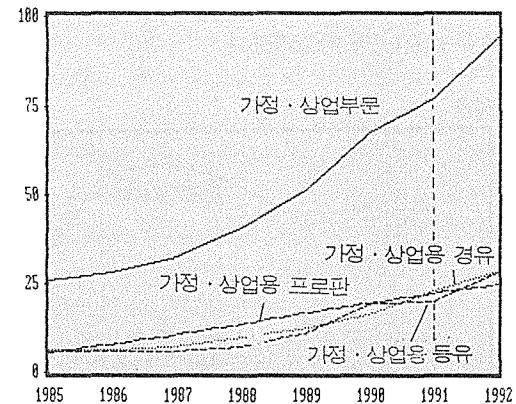
3) 가정·상업부문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편의성과 청결에너지의 소비자 선호에 따라 등유, 경유, 프로판이 석탄을 급속히 대체하여 석유의 경질화와 가스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국내석탄산업은 '92년도 석탄생산이 '88년도의 절반수준인 1천만톤에 그치는 등 연료의 대체화로 동절기 난방유류의 소비가 급증하였다.

'92년 가정상업용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21.8% 증가했으며 유종별로는 가정상업용 등유가 40.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경유는 10.2%, 프로판은 11.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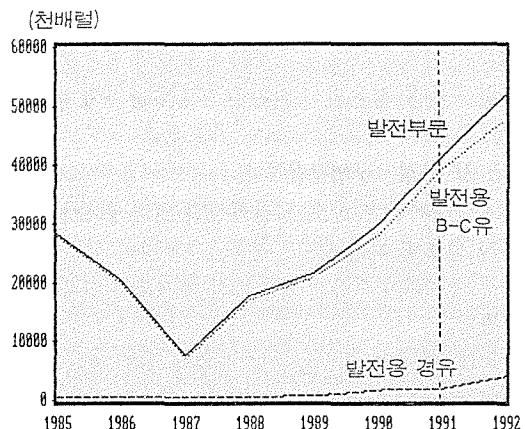


4) 발전부문

'92년도 발전부문의 석유소비량은 전년대비 25.1% 증가하여 '91년의 39.4%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아직도 전체 석유소비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비록 최근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준공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증가에 비해 전력 예비율의 저하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화력발전 의존도가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 유종별로는 발전용 B-C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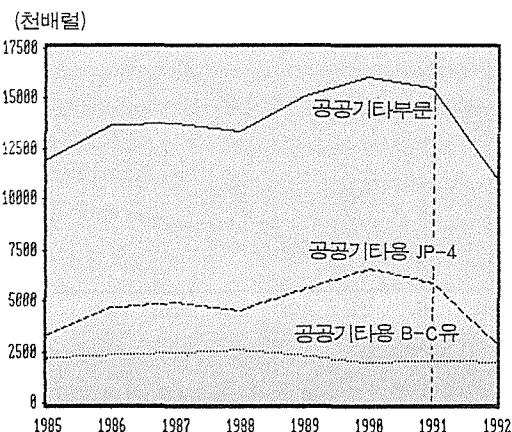
였고 더우기 발전용 경유는 전년대비 101.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5) 공공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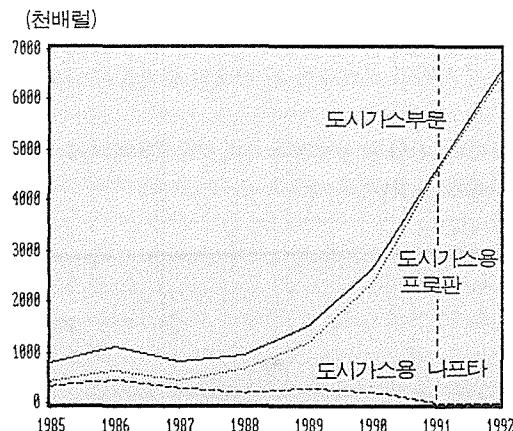
공공기타부문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28.7% 감소하였다.

이 부문의 경유소비는 전년대비 17.2% 감소하였고, B-C유는 5.3% 감소하였다. 특히 JP-4는 전년 대비 무려 50.6% 감소하였다.



6) 도시가스 제조용

'92년도 도시가스부문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41.6%인 큰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주로 경인지역을 제외한 도시가스용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청정연료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유종별 석유소비

1) 휘발유

'92년 휘발유의 소비는 전년대비 22.8% 증가한 35,248천배럴로써 '91년의 증가율 21.2%보다 1.6%p 상승하였다. 특히 상반기에 27.5% 증가한 반면 유가 인상후인 하반기에는 18.8%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대부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는 관용,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율인 28.2%보다 낮아 해를 거듭할수록 연비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난 5년간의 1대당 휘발유소비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휘발유가 총석유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평균 6.85%로써 '88년의 5.42%보다 1.43% P 증가하여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수송용이 94.8%, 산업용이 2.5%로 구성되고

(단위 : 천배럴, 대, 배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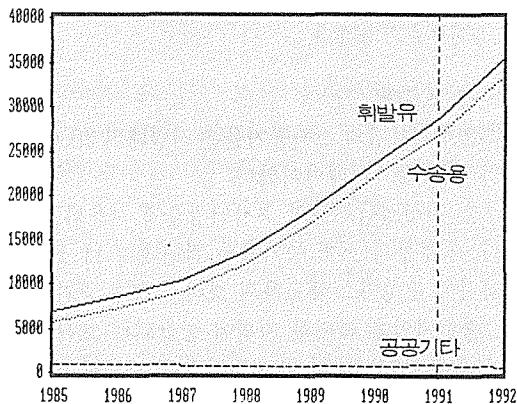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송용 휘발유소비	12,230	16,820	22,250	26,911	33,418
자동차 대수	986,133	1,417,318	1,915,591	2,553,241	3,272,513
1대당 휘발유 소비	12.40	11.87	11.62	10.54	10.21

자동차 대수 = 관용 + 자가용 승용차(영업용 제외, 영업용은 부탄사용)

있다.

'93년부터 전면 무연화조치에 따라 무연화 비율이 점차 높아져 '92년도 무연화비율은 84.6%에 이르렀다.

(천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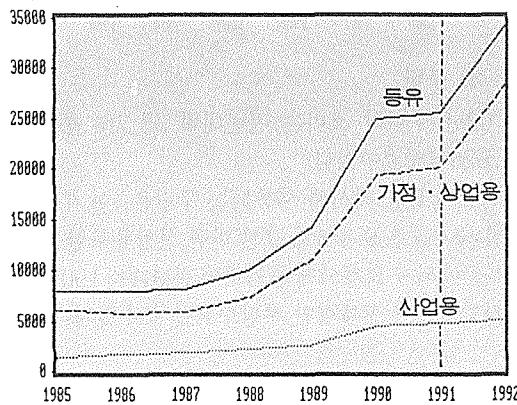


2) 등유

지난 5년간 등유의 소비추이를 보면 '88-'90년의 3년간은 연평균 45.2%의 큰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91년에는 2.6%라는 미미한 증가세로 안정세를 나타내는 듯했다. 그러나 '92년에는 다시 33.8%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아직까지 등유가 석탄으로부터의 연료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석유소비에서 등유의 비중은 '92년 6.7%로, '91년의 6.0%보다 0.7%P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용이 전체의 82.8%, 산업용이 14.9%를 점하고 있다.

(천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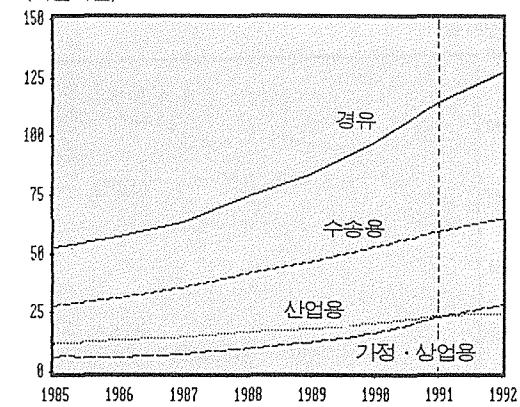
3) 경유

경유는 수송용, 산업용, 가정상업용 등 여러분야에서 소비가 많은 관계로 전체 석유소비에서 24.8%를 차지하고 있다. '92년 경유의 소비 증가율은 11.3%로써 '91년의 17.5%에 비해 6.2%P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에서 크게 둔화되었다. 가정 상업부문은 하반기유가조정으로 등·경유 가격 폭의 심화로 등유의 경유로의 연료대체 때문에 크게 증가하였고, 산업부문의 둔화는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부문 51.1%, 가정상업부문 22.4%, 산업부문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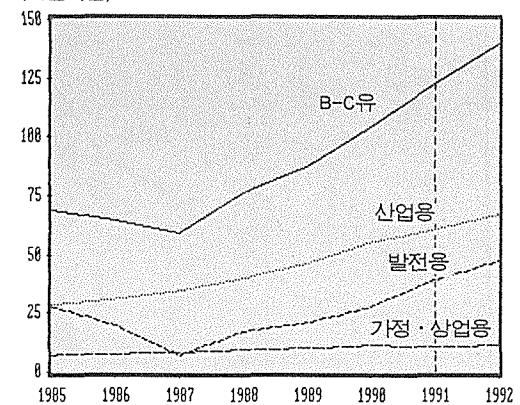
(백만배럴)



4) B-C유

전체 석유소비의 27.2%를 차지하고 있는 B-C유

(백만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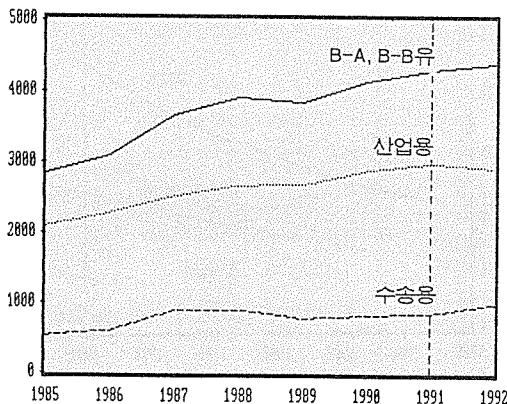
는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용이 48.2%, 발전용이 34.1% 가정상업용이 8.2%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용 B-C는 최근들어 제조업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을 저하로 크게 둔화된 반면, 발전용은 '88년이후 줄곧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B-C의 소비증가를 주도하였다.

품질면에서는 저유황의 비율이 73.3%로 '91년의 66.8%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5) B-A, B-B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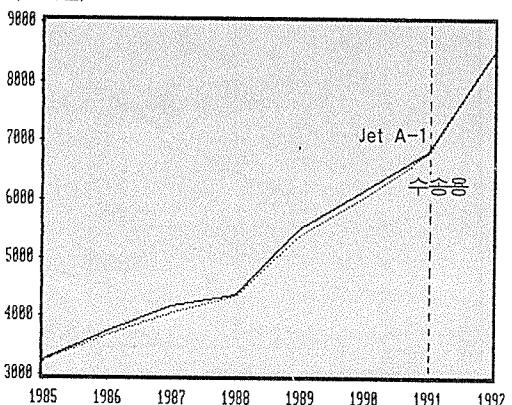
전체 석유소비의 0.9%에 불과한 B-A, B-B유는 '91년의 1.0%에 비해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부문별로는 산업용이 66.5%, 수송부문이 22.4%를 차지하였다. 산업용은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반면 수송용은 연안 수송량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천배럴)



6) Jet A-1

(천배럴)



전체석유소비의 1.7%를 점하고 있는 Jet A-1은 대부분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Jet A-1은 항공기 이용자 증가 및 노선확장에 따른 항공산업의 성장으로 '92년 들어 24.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91년의 10.6%에 비해 무려 14.4% 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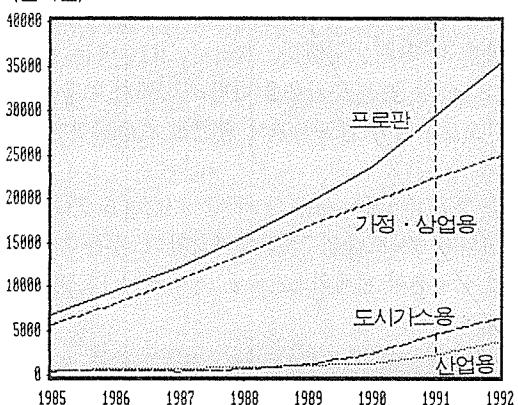
7) 프로판

'92년 프로판의 소비증가율은 전년대비 20.01% 증가한 35,291천배럴이었다.

주로 가정상업부문의 취사난방용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 부문의 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11.1%에 불과하며 도시가스 제조용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 프로판은 전년대비 41.4%의 높은 소비증가율을 나타내 프로판의 소비증가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프로판 중 도시가스제조용은 '91년 12.9%를 차지하였으나 '92년은 18.3%로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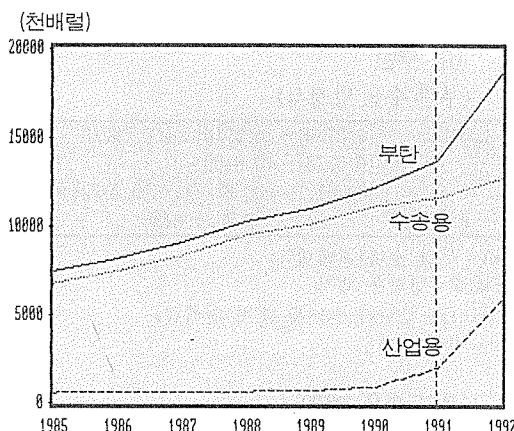
(천배럴)



8) 부탄

'92년 부탄의 소비는 전년대비 35.7% 증가한 18,626천배럴이었다.

주로 영업용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은, 이 부문의 소비 증가율은 9.4%에 그친 반면 산업용부탄은 화학부문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90.2%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부탄수요를 부추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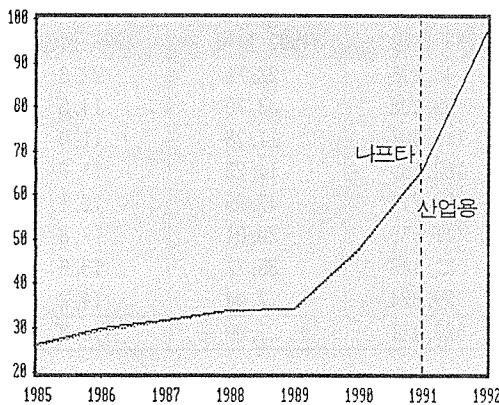
9) 나프타

'91년 하반기 이후, 나프타 분해공장의 신·증설 및 정유사들의 BTX 제조공장의 준공으로 '92년 나프타소비는 전년대비 47.9% 증가한 97,158천 배럴이었다.

나프타는 전체 석유소비의 18.9%를 점유하여 물량면에서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 또한 높아 '92년 총 석유소비증기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92년 총 석유소비 증가율인 21.09%에서 나프타를 제외할 경우 16.19%에 이르러 증가율 중 4.9%가 나프타 소비 증가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92년에 석유화학공장의 신·증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93년 나프타소비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백만배럴)



2. '93 석유 소비 전망

(1) 제품별 수요 전망 모형

(가) 휘발유

〈휘발유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 G &= -[1.8462] + [0.8476] \times \text{LOG PCCAR} \\ &\quad (3.74) \quad (21.29) \\ &\quad - [0.3678] \times D3 \\ &\quad (3.82) \\ R^2 &= 0.9847 \quad D.W = 2.1030 \end{aligned}$$

G = 휘발유 소비(천배럴)

PCCAR = 휘발유 사용 승용차 대수

D3 = Dummy 변수

〈휘발유 수요 전망〉

'92년 : 35,248천배럴(실적)

'93년 : 43,125천배럴(전년대비 22.3% 증가)

(나) 등유

〈등유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 K &= -[1.0614] + [0.5431] \times \text{LOG PCNP} \\ &\quad (1.1847) \quad (2.9673) \\ &\quad + [0.6720] \times \text{LOG } K(-1) - [0.1899] \times D3 \\ &\quad (3.7255) \quad (1.4670) \\ R^2 &= 0.9413 \quad D.W = 2.0258 \end{aligned}$$

K = 등유 소비(천배럴)

PCNP = 1인당 국민소득 \Rightarrow 85년 불변 GNP(십억 원)/인구 수 $\times 100$

K(-1) = 등유의 전년도소비(천배럴)

D3 = Dummy 변수

〈등유 수요 전망〉

'92년 : 34,249천배럴(실적)

'93년 : 39,203천배럴(전년대비 14.5% 증가)

(다) 경유

〈경유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 D &= -[0.1802] + [0.8029] \times \text{LOG BUSTCK} \\ &\quad (0.1931) \quad (19.3964) \\ &\quad + [0.1181] \times \text{LOG DCPI} - [0.1096] \times D5 \\ &\quad (1.2271) \quad (3.8954) \\ R^2 &= 0.9967 \quad D.W = 2.0777 \end{aligned}$$

D = 경유 소비(천배럴)

BUSTCK = 경유사용 자동차대수(버스+트럭)

DCPI = 경유의 가격지수

D5 = Dummy 변수

〈경유 수요 전망〉

'92년 : 127,434천배럴(실적)

'93년 : 141,504천배럴(전년대비 11.0% 증가)

(라) B-C유

〈B-C유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BC} = & -[3.2687] + [1.2326] \times \text{LOG GNP} \\ & (0.6641) \quad (3.6153) \\ & + [0.0465] \times \text{LOG BCCPI} - [0.2069] \times D4 \\ & (0.1848) \quad (2.8936) \end{aligned}$$

$R^2 = 0.9760 \quad D.W = 2.0507$

BC = B-C유 소비(천배럴)

GNP = 국민총생산

BCCPI = B-C유 가격지수

D4 = Dummy 변수

〈B-C유 수요 전망〉

'92년 : 140,104천배럴(실적)

'93년 : 162,169천배럴(전년대비 15.7% 증가)

(마) 프로판

〈프로판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PR} = & -[6.6803] + [1.7125] \times \text{LOG PGNP} \\ & (9.008) \quad (20.3895) \\ & + [0.3787] \times \text{LOG PRCPI} - [0.6036] \times D4 \\ & (5.3064) \quad (5.9466) \end{aligned}$$

$R^2 = 0.9927 \quad D.W = 2.0428$

PR = 프로판 소비(천배럴)

PGNP = 1인당 국민소득

PRCPI = 프로판 가격지수

D4 = Dummy 변수

〈프로판 수요 전망〉

'92년 : 35,291천배럴(실적)

(2) 제품별 수요전망

	물량(천배럴)			증감율(%)	
	1991	1992	1993 전망	1992 실적	1993 전망
휘발유	28,713	35,248	43,125	22.76	22.3
등유	25,599	34,249	39,203	33.79	14.5
경유	114,521	127,434	141,504	11.28	11.0
B-C유	122,632	140,104	162,169	14.25	15.7
나프타	65,671	97,158	108,914	47.95	12.1
프로판	29,408	35,291	41,559	20.01	17.8
부탄	13,724	18,626	21,143	35.72	13.5
기타	24,398	26,116	29,824	7.04	14.2
계	424,666	514,223	587,441	21.09	14.2

* 기타는 전체 증가율을 적용함.

'93년 : 41,559천배럴(전년대비 17.8% 증가)

(바) 부탄

〈부탄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BT} = & -[1.3730] + [0.2914] \times \text{LOG CMCAR} \\ & (0.5778) \quad (0.8409) \\ & + [0.7912] \times \text{LOG BT}(-1) - [0.0122] \times D3 \\ & R^2 = 0.9791 \quad D.W = 1.9430 \end{aligned}$$

BT = 부탄 소비(천배럴)

CMCAR = 영업용 택시

BT(-1) = 부탄의 전년도 소비(천배럴)

D3 = Dummy 변수

〈부탄 수요 전망〉

'92년 : 18,626천배럴(실적)

'93년 : 21,143천배럴(전년대비 13.5% 증가)

(사) 나프타

〈나프타 수요 방정식〉

$$\begin{aligned} \text{LOG NP} = & -[2.8457] + [0.7210] \times \text{LOG NPEB} \\ & (8.6845) \quad (21.8015) \\ & + [0.1596] \times D4 \\ & (3.9015) \\ & R^2 = 0.9873 \quad D.W = 2.0277 \end{aligned}$$

NP = 나프타 소비(천배럴)

NPEB = NCC, BTX제조시설(나프타 소비량으로 환산)

D4 = Dummy 변수

〈나프타 수요 전망〉

'92년 : 97,158천배럴(실적)

'93년 : 108,914천배럴(전년대비 12.1% 증가)